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패자회의는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역사적인 회의

박 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체의 기치, 자주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과 동북혁명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남패자회의를 전후한 시기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열하원정의 후과를 시급히 극복하며 항일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남패자에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항일련군 제1군소속의 부대들을 남패자에 모이도록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시련과 사선을 헤치고 남패자로 온 부대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7(1938)년 11월 25일 몽강현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 제1군의 군정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에서 열하원정로선의 좌경모험주의적본질과 후과들을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대규모적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와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그 지휘관들을 임명하였으며 부대들의 활동구역을 분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패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새로운 군사정치적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만주국경찰사》에서는 《1938년 11월 김일성은 동성(주, 통화성) 몽강현 남패자에서 개최된 유격대간부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국경지대로의 진출과 무장투쟁을 조선본토에까지 확대할것을 제안하고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남만과 동만 일대에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통합하여 이것을 세개의 방면군으로 재편성하는것과 함께 각각 활동구역을 설정하였다.》라고 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패자회의는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선혁명뿐만아니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패자회의는 남호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7권 100페이지)

남패자회의가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회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동북항일련군안의 중국인지휘성원들로 하여금 동북혁명의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이 수행하는 무장투쟁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혁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철두철미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방식과 전략전술에 따라 벌려나갈 때에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열하원정은 동북지방의 항일무장부대들이 료서와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여 《동정항일》, 《실지회복》의 구호밑에 열하쪽으로 진격하는 로동홍군부대들과의 련합작전으로 중국관내에 쳐들어가는 일제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였다.

국제당이 추구한 이 원정의 전략적목적은 북상동정하는 로동홍군과 서정하는 항일련군 부대들이 열하계선에서 합류함으로써 중국관내와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투쟁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전반적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가자는데 있었다.

국제당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만과 길동지구, 북만 등 만주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항일무장부대들에 《만주국》의 수도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하고 열하계선까지 진출하여 관내투쟁과 협동함으로써 일본군과 만주국의 숨통을 더 바싹 조일것을 지시하였다.

국제당의 지시로 하달된 열하원정계획은 유격전의 기본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물론 당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유격전의 기본요구는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승산있는 전투만을 진행함으로써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적은 력량으로 보다 많은 적을 소멸약화시키는것이였다.

유격전의 이 요구를 관철하자면 정규군이 마음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지대인 산악과 밀림을 리용하여 적의 현대적기동수단과 타격수단들이 맥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립기응변의 전술로써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면서 적을 부단히 소멸약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후방이 없는 조건에서 튼튼한 군중적토대에 의거하여 인적, 물질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격대가 산악지대를 떠나 벌방으로 진출한다는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 물에 오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였다. 동만과 남만, 북만의 산악지대들은 유격대가 활동하기에 유리하였고 군중토대가 좋았으며 지리적과약도 깊은 지대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에 의거하여 불의의 습격전이나 유인전, 매복전과 같은 유격전만을 해오던 항일련군 부대들을 장춘지구나 봉천평야와 같은 무변광야에 내세워 최신 장비로 무장한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화될수 없는 모험이였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중국혁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리해가 부족할뿐아니라 조선혁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군사학적으로도 좌경모험주의적인 계획이였다.

열하지역은 동북에 있는 항일련군측으로 볼 때에는 수천리 떨어진 먼곳에 있었다. 력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격대가 수적으로 수십수백배나 되는 적들이 집결되어있는 평야지대를 지나 것처럼 먼거리를 행군해간다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련군 부대들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국제당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공명정대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던 항일련군의 적지 않은 부대들이 열하방면으로 진출하였다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동북항일련군 제1군의 부대들은 1938년 봄 열하원정을 개시하자마자 적들의 포위속

에서 힘든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다가 제1사 사장 정빈이 부대를 데리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비상사태까지 일어나 제1군의 열하원정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았다.

1937년 여름에 열하원정을 개시하였던 북만의 항일련군 부대들도 강력한 포화력과 기동수단을 가진 관동군의 추격을 받아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큰 손실만 입었으며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수습해가지고 산악지대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몇해동안 동북혁명에 혼란을 일으키고 무모한 전투와 희생을 강요하던 열하원정은 남만에서는 1938년에 그리고 북만에서는 1939년에 이르러 막을 내리었다.

열하원정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일만통치질서의 수립과 적들의 압도적우세로부터 온 객관적조건에도 있지만 기본은 그것이 주관주의적이며 모험주의적인 원정이었으며 항일련군 부대들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패자회의에서 혁명가들이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자기의 힘과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게 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수 있을뿐아니라 세계혁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방침은 조선혁명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일제의 발악적공세와 동북혁명에 커다란 피해를 준 좌경모험주의적인 열하원정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었다.

혁명가들이 혁명투쟁에서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그 어떤 외부의 강요나 지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옹계 벌려나갈수 있으며 주관주의, 모험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혁명의 리익에 어긋나는 모든 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패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방침은 동북항일련군간의 중국인지휘간부들과 혁명가들로 하여금 동북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동북혁명의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도록 고무하였다. 남패자회의는 지난 시기 국제당에 있던 일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지령》에 추종하여 무모한 열하원정을 단행하였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한 그들에게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게 되면 혁명투쟁에서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깨우쳐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동북혁명에서 주체성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남패자회의가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회의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동북항일련군 부대들의 전투력을 높여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혁명투쟁에서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가들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야만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시 항일련군 제1군을 비롯하여 동북항일련군에 소속된 적지 않은 부대들이 원정과정에 많은 유생력량을 잃었다. 항일무장부대들에서는 도주자와 귀순자들도 생기었으며 여

러 지휘관들이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적들의 품으로 기여들어갔다. 그리하여 항일련군의 비밀이 적들에게 로출되고 동북항일련군안의 중국인무장부대들의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적들은 동북의 항일무장력량이 붕괴직전에 이르렀다고 떠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패자회의에서 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방면군과 독립련대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조선인민혁명군을 개편한것은 무장력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반영한것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혁명군대가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대상으로 하여 넓은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무장투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자면 조성된 정세에 맞게 무장대오의 재편성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관들과 수많은 대원들로 보충된 경위련대를 새롭게 개편하여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의 지휘관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집요하게 감행되던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로부터 제1로군 지휘부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더욱더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방면군으로 편성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키워오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우수한 지휘간부들과 대원들을 1방면군 부대들을 비롯한 여러 부대들에 수많이 파견하시여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방면군으로 편성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보다 큰 규모의 대부대로써 더욱 넓은 지대들을 담당하여 군사정치활동을 한층더 적극화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대부대의 역량으로 맞서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군조직체계가 새롭게 수립됨으로써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중간단위의 조직기구를 없애고 지휘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부대들의 활동에 대한 지휘를 보다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남패자회의는 조선혁명뿐아니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항일혁명투쟁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수 있게 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